中 전기차 점유율 상승폭 세계 3위… 韓 생산기반 보호 비상

국내 점유율 4년 새 33.9%로 급등
멕시코·브라질 이어 상승폭 3위
대중 자동차 무역적자 6조 육박
美·EU·日 자국 車산업 보호 강화
업계, 韓 생산세액공제 도입 촉구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 BYD 씨라이언6 DM-i. /차현정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 상승폭이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이 관세와 세제 지원으로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32.8%포인트 상승했다.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중국을 제외한 9개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였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0%에서 90.7%로 높아졌다.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81.6%포인트 올라 뒤를 이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스페인 21.9%포인트, 독일 5.1%포인트, 일본 2.3%포인트, 인도 0.9%포인트 순이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2%포인트, 1.1%포인트 낮아졌다.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 확대가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소재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멕시코·브라질과 달리 한국은 자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고용이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은 관세와 생산 지원을 통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데 무게를 두고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당 4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20만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한국은 중국산 수입 승용차에 기본관세 8%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수출 비중이 큰 산업구조상 주요국과 같은 고율 관세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며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기차를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면서 무역적자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는 약 42억3000만달러(약 6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액인 약 25억1000만달러도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약 44억달러로 79.2% 늘어난 반면 대중국 자동차 수출액은 약 1억7000만달러로 34.9% 줄었다.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과 BYD 등의 국내 판매 확대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한국벤처투자, K-콘텐츠 해외 투자유치 확대

콘텐츠진흥원과 글로벌 진출 협약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왼쪽)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윤지 원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진출 유망 콘텐츠기업 및 프로젝트 발굴·정보 공유 ▲국내외 투자자 및 사업 파트너 연계와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관련 행사 협력과 각 기관별 네트워크를 연계한 기업 성장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등을 힘쓰기로 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글로벌 리그펀드 및 해외 VC 글로벌 펀드 등을 통해 구축한 해외 투자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우수 콘텐츠기업과 해외 투자자 간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K-EXPO, U-KNOCK 등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과 해외 콘텐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발굴 및 현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전문성과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통합 진에어 본사보다 지역경제 실익 우선

대한항공, 서울·부산 기능 분담 추진
부산 정치권, 본사 부산 유치 요구
김해공항 국제선 33개 노선으로 확대

통합 진에어의 본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부산의 본사 유치 요구와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서울·부산 기능 분담안이 맞서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본사 이전 여부보다 부산발 항공편 확대와 관광 수요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말까지 부산시·국토교통부·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통합 LCC 부산 제2허브 구축계획(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에서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부산에는 업무 분야별 본사 기능과 영남권 특화 영업·마케팅, 허브 운영 기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에어부산 통합에 따른 지역 거점 항공사 소멸을 우려하며 본사의 부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산업은행도 부산 본사 설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B737-800. /진에어

본사 소재지에 대한 이견과 별개로 부산발 노선 확대와 운항·정비 기반 확충 계획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합병을 승인했으며, 통합 진에어는 내년 3월 17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통합 진에어는 김해공항 국제선을 기존 28개에서 33개 노선으로, 주간 운항 횟수를 281회에서 339회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 4개와 동남아시아 1개 노선을 신설하고, 부산 근무 인력 1184명(에어부산 997명·진에어 187명)의 고용을 승계하는 한편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김해공항에 배치된 항공기 21대도 추가 확충하고 기존 운항통제·훈련시설을 유지하면서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부산 거점 확대 계획은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집계한 지난 1~10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033만561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중진공, 직원이 만든 AI로 업무혁신 나선다

사내 AX 챌린지에 41개 팀 참여
10개 개발 과제 중 우수작 4개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비효율을 직접 개선하기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사내 'AX 챌린지'를 열고 선정된 우수 AI 서비스를 현업에 적용, 정식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에는 총 41개 팀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0개 팀을 선정해 약 3개월간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이후 10개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직원 체험평가와 전문가 발표·시연평가를 거쳐 업무 활용성과 향후 발전·확산 가능성이 높은 4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인공지능(AI) 기반 전략적 예산관리시스템 ▲대출채권 사후관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정책자금 현장운영 지능형시스템 FOO ▲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경영위기 선제대응 시스템이다. 이 중 FOO(Field Operation Optimizer)는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대회 AX혁신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했다.

중진공은 대외 경진대회에서도 성과를 냈다. 이번 사내 AX 챌린지에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와 개념검증(PoC)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재경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한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 본선에 진출했다.

중진공은 이번 챌린지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업무혁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챌린지에서 도출된 10개 개발 과제의 아이디어와 PoC 성과는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현업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FOO 등 적용성이 높은 과제는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고, 나머지 개발 과제에 대해서도 2027년 정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검증된 AI 활용 모델을 실무에 정착시키고 기관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전자책 구독 이벤트

코웨이가 교보문고와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고객 이벤트를 펼친다.

22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올 하반기부터 진행해 온 공동 프로모션에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반응으로 상호 시너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보문고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코웨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간 내 이벤트에 참여한 코웨이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교보문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 sam 무제한 1년 이용권'과 '전자책 전용 1만원 캐시'를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코웨이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닷컴에서 정회원 인증을 완료한 후 '코웨이 멤버스 클럽' 내 교보문고 이벤트 페이지에 가을에 읽고 싶은 책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김승호 기자

大·中企 상생 성과 공유·협력기회 모색

중기부, 23~27일 14개 행사 운영
기업·국민 참여로 상생 성과 공유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동반성장주간'을 운영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동반성장주간은 '상생협력의 결실,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메시지 아래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상생협력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열린다.

특히 기존의 포상 중심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상생협력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참여·확산형 행사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주간 동안 국회 정책 토론회, 사업별 설명회, 우수사례 공유, 대기업 상생협력 발표, 지역사회 동반성장 세미나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먼저 동반성장주간 주요 행사인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기념식'은 오는 2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연다.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유공 포상 수상자, 기업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선 그동안 사업별로 분산해 진행하던 유공 포상을 통합해 개최한다. 또한 우수사례 전시와 참여형 이벤트 등을 마련해 참석자들이 상생협력의 성과와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주간 동안 상생협력의 성과를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질 예정이다.

동반성장주간 초반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결제, 상생협력기금 등 주요 상생협력 제도의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제도 활용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승호 기자